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지스트'!

지스트 「오룡아트홀」 지역민에 개방

- 기존 오룡관 1~2층 내벽 활용해 아트갤러리 조성...누구나 무료 입장·관람 가능
- 제1회 초대전으로 서양화가 김혁정 작가 작품 전시...21일(수) 개관식 개최



▲ 김혁정 작가의 우주 - 별들의 시간 연작으로 새롭게 단장한 오룡아트홀의 모습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강당과 강의실로 이뤄진 기존 오룡관에 「오룡아트홀」을 새로 조성하고, 지역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전면 개방한다.

지스트는 12월 21일(수) 오후 5시에 「오룡아트홀」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제1회 초대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인 김혁정 작가를 초청해 <섬으로 떠올라 꽃으로 피어나라>를 제목으로 한 첫 전시회를 내년 1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지스트 캠퍼스 정문 인근에 위치한 오룡관은 최대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건물로, 입학식과 학위수여식, 설립기념식, 각종 학술행사나 강연 등이 개최되어 왔다.

지스트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오룡관을 개방해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새로운 오룡관 운영전략을 구상해 왔으며, 오룡관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모두의 열린 문화공간이자 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는 미래 비전 사업의 '빅 게이트'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번 「오룡아트홀」 조성을 준비해 왔다.

「오룡아트홀」은 오룡관 1층과 2층의 내벽을 활용한 아트갤러리 형태로 조성됐으며,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외부인 제한 없이 누구나 오룡관에 들어와 1~2층에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 1회 초대전 '섬으로 떠올라 꽃으로 피어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오룡아트홀의 모습

「오룡아트홀」 제1회 초대전의 주인공인 김혁정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독일 루드빅스부르크에서 초대전을 개최하고 프랑스 파리 살롱 도톤느전에 작품을 출품, 예술의 전당 미술관 아트페어에 참여한 지역 예술인이다.

김혁정 작가의 이번 초대전에는 **자연과 생명을 작가만의 심상으로 재해석한 작품 41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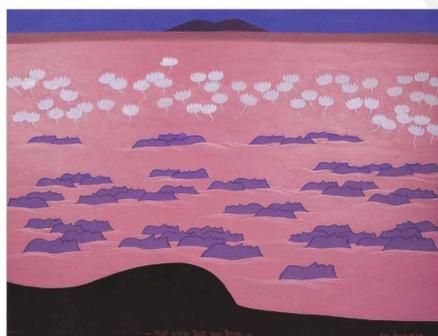
2022 THE SOLO EXHIBITION BY KIM HYUCK JUNG

섬으로 떠올라 꽃으로 피어나라

— INVITATION —

개관식 2022. 12. 21. 수 17시

지스트 오룡관
오룡아트홀



2022. 12. 1. 목 - 2023. 1. 31. 화

광주과학기술원
GIST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 123 T. 062-715-5026

▲ '섬으로 떠올라 꽃으로 피어나라' 지스트 오룡아트홀 김혁정 초대전 초청장

향후 「오룡아트홀」은 지역 작가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청년 작가와 신인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2회 초대전으로는 최순임 작가의 <BON VOYAGE> 전시 예정돼 있다.

전창덕 대외협력처장은 “오룡아트홀이 오룡관을 지식과 학술 교류의 공간이자 문화적 향유가 가능한 공간으로 한층 빛내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오룡아트홀이 **지스트는 물론 과학기술과 과학문화가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확산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선 총장은 “지난 30년 간 지스트를 성원해 준 지역사회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번 **오룡아트홀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보다 개방적인 지스트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지스트가 지역민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문화공간으로서 오룡아트홀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람 문의: 062-715-5026 (대외협력팀)